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20. 1. 3.(금) 행사종료 직후(11:3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1. 3.(금)	담당부서	자동차항공과, 수출입과
담당과장	양병내 과장(044-203-4321) 조익노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박일철 서기관(044-203-4321) 한주현 사무관(044-203-4041)

2020년 수출 1호 전기차, 평택항 출발!

❶ **470여대 친환경차**가 **평택항**을 출발, 독일 등 유럽시장으로 수출

- **전세계 60여개국**의 도로 위를 니로 등 우리 친환경차가 질주
- **수소트럭**도 선적, 현지 테스트를 거쳐 **금년부터 본격 수출**

❷ **①수출규모 · ②지역 · ③차종 확대**와 함께 **④수출구조가 크게 변화**

① **'19년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전년대비 25% 이상 확대**
('18년 19.6만대 → '19년 잠정치 24.9만대)

② 수출지역 **60개국 이상**으로 확대('19년 +9개국), 동남아 등 전략시장 공략

③ 친환경 승용차 중심 → **버스 · 트럭 · 초소형차 등 차종 다양화**

④ **친환경차 비중 1%**('15) → **10%**('19), **중소·중견 뉴플레이어** 역할 강화

❸ 친환경차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수출비중을 **현재 10% → 2030년까지 25% 이상으로 확대 전망**

❹ 자동차를 포함한 **'20년 전체품목 수출은 '19년 대비 3% 증가한 5,600억 달러**로 전망, **1분기 수출 조기 플러스 전환**을 목표로 **총력 대응 체계**를 가동할 계획

【 친환경차 수출 현장 방문 】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**평택 · 당진항**을 방문하여 자동차 수출 현장의 근로자들을 격려하였음

○ 현장에는 **전기차·수소트럭 개발자, 항만 근로자 등 수출 주역**들이 함께 자리하여 **2020년 첫 친환경차 수출길을 배웅**함

□ **평택·당진항**은 '18년 144만대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 등 **전국에서 자동차 물동량**이 가장 많은 항만

* 7년 연속 전국항만 자동차 물동량 1위

< 현장방문 개요 >

○ 일시/장소 : '20. 1. 3(금) 10:40 / 평택항 기아자동차 전용부두

○ 참석자 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해양수산부 장관, 해경청장, 경기도지사, 평택시장, 기아자동차 대표이사,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등 100여명

□ 평택항을 출발하는 **글로비스썬라이즈호***는 평택항에서 **1,300대, 광양항, 울산항에서 각각 800대, 2,160대 등 총 4,260여대**의 수출 차량을 싣고, 유럽으로 향하게 됨

* ▲ '14년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6만5천톤급 자동차 운반선, ▲ 차량 7,300대 선적이 가능한 규모 (길이 200m, 너비 35m, 갑판 13층(일반건물 21층 높이))

□ 전기차 등 **친환경차**는, **평택항에서 468대**를 선적하고, 광양항 및 울산항에서 1,900여대를 추가로 선적하여 **총 2,400여대**를 **독일・포르투갈・핀란드・덴마크 등 유럽 6개국**으로 수출할 예정임

○ **2020년 전기차 수출 1호차인 니로**는 친환경차(전기차, 하이브리드 등) 전용 모델로, 친환경차 중 **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차량**임

* '19년 수출대수 총 10.9만대(전망치) : ▲BEV(배터리전기차) 1.7만대, ▲PHEV(플러그인하이브리드) 1.7만대, ▲HEV(하이브리드) 7.4만대

○ 함께 선적된 **수소트럭 '넵튠*'**은 **스위스 현지 테스트 및 시범운행** 후 **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어 '25년까지 1,600여대**가 스위스로 수출될 계획으로, * 수소트럭 시스템名. 실제 수출시 디자인 등 변경 가능

- **'20년 출시되는 '세계 상용차 중 가장 혁신적인 차'**로 국제무대에서 인정*받은 바 있음

* 73.2kWh 용량 배터리 장착, 1회 충전으로 300km 이사 운행, 총중량 19톤

* 상용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'2020년 올해의 차(International Truck of the Year)' (유럽 상용차 전문매체 기자단 투표)에서 혁신부문 수상('19년)



< 전기차 「니로」 >



< 수소트럭 >

□ 1월 7일 최종적으로 울산항을 떠나는 동 수출선에는, 전체 차량의 **56%를 친환경차**가 차지하고 있음. 수출 현장에서 보듯 **우리 자동차 산업의 생산·수출이 급격한 전환기**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임

【 ① 친환경차 보급 및 수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 】

□ **[글로벌 시장확대]** 보호무역주의 확산·글로벌 수요 정체 등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**양적 성장이 둔화***되는 가운데, **전기차·수소차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차량의 시장은 급속히 팽창** 중임

* 주요국 판매증감률('19.1~10월, Markline) : (中) △10%, (印) △14%, (美) △3%

○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**매년 50~70% 성장하여 100만대 규모를 돌파**, '19.1~10월간 전년('18.1~10월: 92만대) 대비 **28.4% 증가한 118만대가 판매**되었으며, **수소차**도 **전년 동기 대비 100% 증가***

* 세계 수소차 판매(대) : ▲ ('16년) 2,219 → ('17년) 3,303 → ('18년) 3,904, +18.2%
▲ ('18.1~10월간) 3,025 → ('19.1~10월간) 6,097, +101.6%

□ **[국내보급 및 해외수출]** 국내 자동차산업도 **글로벌 시장 여건**에 따라 총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으나, **전기차·수소차 등 고부가 친환경 자동차는 국내 보급을 바탕으로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**

○ **(국내) 국내 전기차 보급**은 **'20년 중 10만대 보급**을 달성('19.11월 말까지 8.7만대)할 전망이며, 수소차는 **'20년까지 약 1만 5천대**를 보급할 수 있을 전망('19.11월말까지 4,650대) (누적 기준)

- 국내 소비자 **구매대기 수요**('19.12.31 現)도 **전기차 3,100대 이상, 수소차 4,500대 이상**으로 국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

* 국내 생산 전기차·수소차의 해외 구매대기 수요는 27,000대 이상

○ **(해외)** 전기차·수소차 등 **친환경차 수출 누적대수**는 **70만대를 돌파**('13년~'19년) 하였으며,

- 특히 '19년 **전기차 수출대수**는 **전년 대비 약 90%, 수소차**는 **약 230% 증가**할 전망 ※ '19년 생산·수출 실적치는 1월 중순 발표

【 ② 친환경차 수출 지평 확대 】

□ **[수출국 증가]** '20년 제1호 수출 전기차 니로의 경우 **'19년 수출국이 9개국** 늘어나 **총 60개 국가에 수출**이 이루어지고 있음

□ **[전략시장 확대]**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**인도 전기버스 시장*** **진출**이 가시화되는 등 그간 **약세*를 보였던 자동차 시장**으로까지 우리 친환경차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중

* 중국·인도 등 6개사 경합 결과, 가격 열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 선정

* 동남아 시장에서 도요타 39%, 혼다 19%, 다이하츠 18% 등 일본 기업 비중이 大 (한국은 약 4%), 인니에서 日本 자동차 점유율은 97% (인니 자동차생산협회)

○ **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차량공유 기업 '그랩'**과 국내 완성차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향후 **전기승용차**의 공급도 기대가 되는 상황

【 ③ 친환경차 수출 차종의 다양화 】

□ 수출 친환경차의 종류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, **버스·트럭 등 상용부문**을 포함하여 다변화될 예정으로,

○ **대용량 전기배터리, 수소스택, 모터 구동시스템** 등 우리의 앞선 기술과 신뢰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임

□ 국내 **전기버스** 뿐만 아니라 **초소형전기차·청소차** 등을 활용하여 동남아·유럽 시장 등을 공략할 전망이며,

○ 향후 **특장차** (공항 등 특수용도 차량), **덤프트럭** 등으로도 **수소차 라인업**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

【 ④ 자동차 수출 산업구조의 변화 】

□ **[친환경·고부가 중심 수출]** 국내생산 정체에도 불구하고 **수출금액이 5.3% 증가***하는 등 친환경차를 포함한 **고부가 차량의 역할이 확대**되고 있음

* '19년 수출금액 : 전년대비 5.3% 증가한 430.7억달러

○ 일반 내연기관차와 대비하여 **전기차의 수출가격이 평균 99% 더 높고, 수소차의 수출가격은 평균 263%** 더 높음

○ 전체 자동차 수출 중 **친환경차 비중**(대수)은 **1.3%(3.9만대, '15년)에서 10.6%(23.2만대, '19.1~11월)로 크게 증가**하였음

□ **[뉴플레이어]** 아울러, 버스·초소형 전기차 등 수출차종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생산하는 **중소·중견기업**의 역할이 커지는 등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**뉴플레이어의 비중**도 확대되고 있음

【 향후 추진방향 】

□ **[친환경차 수출비전]** 친환경차의 **수출비중**은 **현재 10% 수준에서 '30년까지 25% 이상으로 확대**될 것으로 전망

□ **[정책추진 방향]** 전기차·수소차 **수출역량 제고**를 위하여, 정부는 **우리 자동차 업계**와 함께 **국내보급 확대·차량 성능향상 및 부품생태계 경쟁력 강화**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○ **(국내보급 확대)** 친환경차 보급에 **전년 보다 60% 이상 늘어난 9,500억원을 투입**하여 **구매보조금과 충전소 구축**을 지원할 계획임

* 연간 판매목표 : ▲ 전기차(승용, 버스, 화물) : ('19) 4.4만대 → ('20) 7.3만대
▲ 수소차(승용, 버스) : ('19) 5,500대 → ('20) 1만대

○ **(차량개발 및 성능제고)**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·트럭 등 **전체 차종으로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**하여 **국내 미세먼지 감축**과 **해외 친환경 상용차 시장선점**을 준비하고, 이를 위한 **핵심부품 성능과 내구성 강화에 집중 투자***할 계획임

* '20년 보급 : ▲전기화물차 : 7,500대, ▲수소버스 : '19년 37대 → '20년 180대

* 친환경차 기술개발 지원 규모 : ('19) 1,328억원 → ('20) 2,043억원, +53,8%
-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개발('20년 50억원), 수소트럭 개조('20년 60억원) 등 추진

- 보조금도 **효율·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으로 개편**을 추진하여 **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**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

○ **(부품생태계 지원)** 단기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**지속적으로 자금**('20년 2.4조원)**을 지원***해 나갈 예정임

* 한국GM협력업체·산업위기 지역 등 부품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·보증 만기 연장(**2조원 이상**, '20년말까지), 장기자금(P-CBO) **3,500억원 지원**('20) 계획

- **해외 완성차 기업**과 부품기업 간 **기술개발·생산협력을 획기적으로 촉진**하여 **글로벌 밸류체인 진입**을 지원하는 한편,

- **개정 기업활력법을 활용**하여 **세제·보조금·용지 등 혜택**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**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**도 금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함

【 2020년 전체품목 수출전망 】

□ 산업부는 **올해 수출**을 **3.0% 증가**한 **5,600억 달러** 내외로 전망함

* 주요 기관 전망치(%) : 현대硏(2.3), 산업硏(2.5), 한은(2.7), KOTRA(3.1), 무역硏(3.3)

○ **올해**는 ①**미중 무역분쟁 완화**, ②**세계 경제 성장률** 완만한 상승 기대, ③**반도체 업황 개선**, ④**수주선박 인도 본격화**, ⑤**친환경·SUV차종의 호조** 등 영향으로 우리 **수출**이 **플러스**로 **전환**될 수 있는 **여건**이 **조성**될 것으로 평가함

❶ 최근 **미·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**로 중국·미국·독일의 제조업 지수(PMI)가 동반 상승하는 등 **경제지표 반등 기대감**이 **가시화**

* PMI('19.9→10→11) : (美)51.1→51.3→52.6, (中)51.4→51.7→51.8, (獨)41.7→42.1→44.1

❷ 글로벌 **세계 경기**와 **교역 수준**이 '19년을 저점으로 **올해**는 **소폭 개선**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**수출**에 **긍정적 영향**

* '19 → '20년 성장률 전망(%, IMF, '19.10) : (세계)3.0→3.4, (선진국)1.7→1.7, (신흥국)3.9→4.6, (美)2.4→2.1, (EU)1.2→1.4, (日)0.9→0.5, (中)6.1→5.8, (인도)6.1→7.0
* 교역신장률('19→'20) : IMF(1.1→3.4), OECD(1.2→1.6), 세계은행(2.1→3.1), WTO(1.2→2.7)

❸ ’20년 반도체 시황은 **제한적인 공급 증가**와 **수요 개선**에 따라 **지난해보다 좋을 것**이라는 것이 대다수 업계·전문가들의 분석임

* 금년 상반기 중 반도체 초과공급 해소 전망(D램의 경우 2분기 반등 전망, 가트너)

○ 주요 전망기관에 따르면 **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대비 5~12% 증가 예상**, 특히 **메모리 시장**은 **4~22% 증가 예상**함

< ’2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(억 달러, %) >

전망 기관(전망 시점)		’18년	’19년 전망	’20년 전망
IHS(’19.12)	전체	4,850	4,248(△12.4)	4,480(5.5)
	메모리	1,646	1,116(△32.2)	1,284(15.1)
Gartner(’19.12)	전체	4,746	4,183(△11.9)	4,707(12.5)
	메모리	1,628	1,115(△31.5)	1,361(22.0)
WSTS(’19.12)	전체	4,688	4,090(△12.8)	4,330(5.9)
	메모리	1,580	1,059(△33.0)	1,103(4.1)

❹ **올해**는 반도체·일반기계·석유화학·자동차·선박·컴퓨터·바이오헬스·이차전지 등 **다수 품목**의 **증가**가 예상되는 가운데, 특히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**자동차·선박** 품목의 **호조**가 전망됨

○ **선박**은 ’16년 수주 급감이후 **’17년 이후 계약**된 선박 **인도 본격화**, **자동차**는 전기차·수소차 등 **친환경차** 중심으로 **호조**가 예상됨

* 수주금액(억 달러) : (’14)332 → (’15)241 → (’16)44 → (’17)173 → (’18)259

* 친환경차 수출대수 : (’18.1~10)149,376 → (’19.1~10)203,598(+36.3%)

□ 나아가 산업부는 **1분기 수출 조기 플러스 전환**을 목표로 **총력 대응 체계**를 가동하고 중장기적으로 위기에도 **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** 구축을 위해 **품목·시장·주체 혁신**을 추진할 계획임

○ 단기적으로 **무역금융** 및 **마케팅 지원** 대폭 확대를 위해

❶ ①주력 및 신흥 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**단기 수출보험 한도 일괄 증액**을 올해 1분기 추가 연장하고, ②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을 지원해주는 **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**, ③**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**, ④**대형 플랜트 수주지원** 등 **수출금융 240조원+α**를 **지원**하며,

① 주력·전략 신흥시장 진출기업 대상 단기 수출보험 한도 증액(10%) 연장
② 계약 기반 특별보증 4배 확대 : (’19) 500 → (’20) 2,000(+300%)
③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: (’19) 3,000 → (’20) 5,000(+66.7%)
④ 국가 차원의 플랜트·방산·스마트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(5조원, ’20)

❷ **글로벌 파트너링(GP) 수출상담회, 신남방·신북방 해외 전시회** 등 **범부처 수출 마케팅 5,112억원 지원** 등 무역금융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

* 범부처 수출 마케팅 지원(억원) : ('19) 4,467 → ('20) 5,122(+14.4%)

○ 중장기적으로 **튼튼한 무역구조 구축**을 위하여,

❶ **바이오헬스·이차전지·전기차·수소차**를 **새로운 수출성장 동력**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**서비스산업**을 **선진국 수준**으로 **수출산업화** 하고,

* 미래차 부품·LNG선박·첨단가전·5G 등 신산업 특화 상담에 지원
*「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」 마련('20.1분기)

❷ **신남방 진출 지원 플랫폼의 단계적 확충** 등을 통해 최근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등으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**신남방·신북방 지역 수출**을 **확대**를 **지원**할 계획이며,

*「新남방 무역확대 전략」 마련('20.上), 한·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('21)

❸ 수출 기업과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**중소기업 수출**을 **적극 뒷받침**하기 위해 내년도 **중소·중견기업 무역금융**을 **역대 최대**인 **58조원 이상 공급**할 예정임

* 중소·중견기업 무역금융 규모(조원) : ('19) 55.8 → ('20) 58.0(+3.9%)

참 고 2020년 품목별 수출 전망

품목명	기상도	증감 요인
반도체		• 5G 본격화 및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• D램 및 낸드 초과 공급 해소 • 현물 가격 상승세
선 박		• 현재 진행중인 LNG 프로젝트 다수 • 수주 급감 시기('16~'17) 이후 선적 인도 본격화
바이오헬스		• 신규 바이오시밀러 지속 출시 •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효과 시현
이차전지		• 우리 기업의 배터리 수주 잔량 다수 • EU 기업 물량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다량 확보 예상
자동차		• SUV·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우리 기업 경쟁력 확보 • 국내 완성차 기업의 신차 지속 출시
일반기계		• 중국·미국 등 주요국 건설 경기 회복 • 인도 인프라 투자 확대
석유화학		• 국내 기업의 新증설 설비 가동 • 타국가 대비 높은 설비 가동률
컴퓨터		• NAND 초과 공급 해소 전망 • 기업들의 SSD 수요 확대 예상
차부품		• 미국·EU 등 주요국에 대한 국산차 수출 호조 지속 • 러시아·브라질 등 신흥국 수요 확대
가 전		• 중국·일본 등 기업과 글로벌 경쟁 심화 • 해외 생산 비중 지속 확대
석유제품		• 유가 전망 소폭 하향 • 아세안 지역 국가 정제설비 증설
철 강		• 글로벌 철강 수출 규제 지속 • 글로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심화
디스플레이		• LCD의 지속적인 단가 하락 • 중국의 OLED 투자 확대 등 글로벌 경쟁 심화
무선통신기기		• 중국·미국 등 기업과 글로벌 경쟁 심화 • 우리 기업의 ODE 생산 확대
섬 유		• 온라인 활성화 등으로 니어쇼어링 확산 • 해외 생산 비중 지속 확대